

목포권

“도청이전 혜택 목포시가 다 누리는데...”

환경부담금 2배 물어 무안군민들 강력 반발

전남도청 이전에 따라 무안군이 도청 소재지로 바뀌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올라 군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4억원으로 지난해 6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우 지난해 2만3천560원이 부과됐던 환경개선 부담금이 올해는 5만8천740원으로 무려 249% 상승했다.



목포시 연동 새마을협의회(회장 고순복)와 새마을 부녀회(회장 정희자) 회원 30여명은 19일 연동 일대 공한지의 변신

시설아동과 함께하는 청소년 복지현장체험 목포시 23일 합평생태공원서

목포시 청소년지원센터는 23일 시설아동과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연계

명과 성덕원, 아동원, 공생원 아동 18명, 보조교사 등 총 41명이 연계하여

생보자 561세대 전기시설 정비

무안군 11월15일까지 전기 안전교육도 실시

무안군(군수 서삼석)은 21일부터 오는 11월15일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전기시설 무료 안전점검과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접안시설 없어 배삯 추가 부담”

신안 가거도 도서민들 ‘운임 지원’ 개선 요구

신안군 가거도 등 5개 도서주민들이 ‘도서민 부담금’이 부담하게 과다 청구되고 있다며 ‘도서민 운임지원사업’의 개선을 바라고 있다.

이해는 가거도와 상·하태도, 다물도, 만재도 등 5개 도서항의 경우 접안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성인의 경우 1천원(어린이 500원)의 이용료를 내고 종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다 1천500원의 목포터미널 이용료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목포시 내년도 국고 지원액 827억원 확보

목포시가 내년도 국고 지원액 827억원(40건)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목포대교 건설 사업의 경우 당초 169억원이던 내년도 사업비가 400억원으로 증액돼 공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대 설치 10억원, 어린이 도서관 건립 9억원,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 10억원 등 신규 사업 17건의 국비가 확보됐다.

Regional news section containing articles about Shinan health center, a school event, and a national competition.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It lists various statistics and numbers for different regions.

A large advertisement section featuring various services such as real estate, insurance, and local businesses. Includes logos for SONY and other brands.